중 국

중국 온라인 플랫폼 협력체계 구축 및 저작권 보호 논의

2026. 11. 04.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는 2026년 10월 21일 베이징에서 알리바바(阿里巴巴), 아이치이(爱奇艺), 바이두(百度), 더우인(抖音), 텐센트(腾讯), 샤오홍슈(小红书) 등 10여 개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강화, 주요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함.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강화

중국판권협회 이사장(中国版权协会理事长) 저우후이린(周慧琳)은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협회와 주요 플랫폼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교류와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와 관련하여 중국판권협회 회원권익보호업무위원회(会员权益保护工作委员会)는 검망2026(剑网2026) 특별단속 관련 방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2026년 1월 이후 침해 링크의 전체 삭제율은 개선되었으나 24시간 이내 삭제율은 여전히 낮고 일부 플랫폼에서는 과도한 신고 요건과 면책 원칙 남용 문제가 나타났으며, 클라우드 저장서비스 분야는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의 중점 관리 등에 따라 24시간 이내 삭제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함.

○ 도서 저작권 보호 및 분쟁조정 규정 설명

중국판권협회 반해적판업무위원회(反盗版工作委员会)는 도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입점 사업자 확인, 침해 통지-삭제, 단계별 제재 등을 담은 총 6장 16개 조항의 「온라인 플랫폼 도서 저작권 보호 준법 지침(의견수렴안)」과 중점 보호 대상 도서 및 사전경보 명단 발표 원칙 등을 규정한 총 7장 20개 조항의 「출판 분야 주요 도서 저작권 보호 사전경보체계(초안)」를 소개함. 이와 함께 중국판권협회 판권분쟁조정업무위원회(版权纠纷调解工作委员会)는 조정 대상 사건, 사건 관리비, 수수료 산정 및 비용 분담·환불 기준 등을 담은 저작권 분쟁조정 수수료 규정을 설명하였으며, 협회는 플랫폼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분쟁조정 규칙·절차 및 조정위원 관리 규정과 함께 시행할 계획임.

■ 참고자료

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
- https://mp.weixin.qq.com/s/m0EBI2z-YPd6oa4GsKszpw